

창간호

발행점 : 조 평
편집인 : 조 평
발행일 : 1984. 6. 18

여성평우

여성평우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8
골든빌딩 302호
전화 717-0160



○ 우리의 지침

1. 우리는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해 일한다.
1. 우리는 남녀공동의 노력으로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일한다.
1. 우리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일한다.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대중여성운동으로

“여성의 평등, 평화”를 목표이념으로 삼고 지난 해 6월 발족된 여성경우회가 그 창립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대다수 여성의 진정한 이익과 관련된 일을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으로는 “가족법연구자료” 발간과 “빈민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 사업등을 펴나갔지만 원래 취지대로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성운동의 경험의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상황에 알맞는 여성문제의 이론이 불충분하고, 여성들의 운동역량 또한 빈약한 단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여성운동의 축적된 힘이 부족함을 실감한 지난 1년간이었습니다. 더우기 여성운동이란 일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대남성투쟁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여성해방을 시구의 왜곡된 성만능주의로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는 편견이 여성운동의 걸음을 더욱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스스로가 여성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한국상황에 맞는 건전한 여성운동의 정착화를 서둘러야겠습니다.

여성운동의 많은 과제를 안고있는 한국 상황에서 여성경우회는 지난 1년간의 미숙한 경험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여성운동의 발전에 공헌할 생각입니다.

우선, 체계화 되지 못한 여성문제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분석적이고, 종합적으로 심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서구 중심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나도 다양하여 혼선을 빚어온 바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문제의 본질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사회문제의 본질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정착화시켜야겠습니다. 올바른 이론정립이야말로 운동의 올바른 정착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성문제의 본질을 분석한 이후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고 그 운동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해야겠습니다. 우선, 여성 스스로가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하고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하면서 자기 몫을 찾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보다 제 몫을 찾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이고 미덕임을 깨닫는 작업에 우선 착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성도 인간이라는 자각위에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여성운동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비인간적인 요소들 그 대상으로 삼는 총체적 운동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여성들만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급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우기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에 방해되는 존재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운동이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권신장에만 머무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여성운동은 비인간화시키는 사회제도, 관습에 대한 도전이며 이것은 남녀공동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동의 노력으로 성취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 여성운동은 실천경험 부분이 타 운동에 비해 빈약하기 때문에 기타 각 사회활동의 세력과 연대를 맺을 때에만 시행착오에서 벗어난 완숙된 여성운동이 이 땅에서도 결실 맺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운동으로서의 독자성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운

여성평우회 공동대표

조 형

지 은 회

이 미 경

동의 특수성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운동은 대다수 여성의 진정한 이익과 관련된 대중운동이어야 함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받아왔다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계층에 따른 억압의 정도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억압의 강도가 심한 소외된 계층으로부터 여성운동의 실천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처지와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여성 각자가 스스로를 교육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한 당사자들이 각자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여성들의 깨우침과 개선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땅의 여성운동이 올바른 궤도로 정착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운동의 관건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해 그 누구의 배려나 이해를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천년의 세월속에서 그 누구도 여성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주고 대신 해결해 주었던 사실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를 자신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두 사람의 역량보다는 각자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하는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입장을 같이하는 다른 여성운동단체와 연대의식을 갖고 한국의 여성운동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의 원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평우회는 아직 초보적 차원의 운동단체라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빈약한 우리로서는 그래도 힘닿는 대로 올바른 토양을 찾아 씨를 뿌리는데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늦게나마 회보를 창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퍼낸 이 회보는 여성운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그 1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끊임없이 전개하는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운동 방향을 한국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동초기에 중요시되는 지식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회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의 괴롭고 억압적인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전체 여성의 대변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 여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평우」를 통한 우리의 논의가 축적되어 여성운동 전문지로서 발돋움 되도록 힘과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이경호 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여성운동가의 ‘배양의 터’로 발전하기를

오재식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선교훈련원장)

여론인 사람들의 자기 해방운동은 인류역사의 즐거운 방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수많은 방해를 받고 좌절되며 배설을 당해왔지만 결코 그런것들이 역사의 흐름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성운동은 이 흐름에서 중요한 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은 남자들, 특히 힘있는 무사들을 중심으로 세워 온 우리 문명을 그 근본에서부터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을 제기로, 우리들은 우리 문명이 편견과 차별로 가득차 있다는 것과 또 그것들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여성평우회의 운동목표를 “사회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타파하려는 총체적인 운동”으로 설정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나 정치적 참여에의 증진같은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여성운동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의 지위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결의를 보여준 것에 적극 지지합니다.

여성운동이 여성의 해방뿐 아니라 편견과 차별구조 속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제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출발을 기뻐하는 것은 동정에서가 아닙니다. 이런 운동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저의 편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람이 저입니다. 조금 더 나가시면 파도도 날을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가지시기를 …….

김희선 (여성의 전화 원장)

작년 초,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단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모임을 확실히 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가금들었다. 그때마다 준비하는 평우회 말기인들이 청소에 기대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평가 되어가는 것 같은 막연한 기대와 예정을 가졌었다. 그후 참립총회의 “모시는 말씀”에서 여성평우회란 단체명과 세가지 지침의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창립총회 당시에는 바로 그 의욕과 성실함, 자연스러운 진행, 거기여다가 무거워지듯이야말로 한국여성운동의 적극적인 목표와 의의를 제시하고 있어 일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를 기억하면 신실함과 신바람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은근히 구성원들이 최고학부의 엘리트로 모여졌으니 말과 글로써야 무엇을 못할까? 하는 마음도 한 구석에 있었다.

일년이 지난 동안 여성평우회가 몸으로 뛰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력과 조직력, 차분히 내실을 다져가

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당당히 영기는 성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단체들이 걸어온 실패의 아픈 경험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되어 믿음직스러웠다.

양식이나 상식이 갖는 견고한 기반도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혼돈의 상황이 우리의 현주소라고들 한다. 방향과 모색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젊은이, 특히 여성들에게도 의식화된 젊은 여성의 고민이 아닌지? 우리 여성들에게 의리와 동지의식이 없다는게 일반적 사회통념이고 또 실재인 것 같다. 절혼전의 이념적 친구는 결혼생활과 비례하여 소원해진다고 한다. 여성평우회는 젊은이성들의 모임이니 만큼 이러한 사회의 통념을 현실적 차원에서 깨칠 수 있는 동지의식의 강한 전속제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여성운동은 이념과 철학을 가진 실천가로서 운동을 확산시켜 갈 젊은 여성운동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평우회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지도자를 민주적으로 훈련시켜 키워낼 수 있는 여성운동가의 “배양의 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명실공히 새로운 한국여성단체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계층의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의 문”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각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수렴된다면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내실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실천의 장과 민주적인 압력단체의 역할을 능히 해 낼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머리와 힘으로 하는 운동과 더불어 몸과 가슴으로 해낼 수 있는 정단들이 모아진 시대의 증인들로서의 공동체와 표본을 한국여성단체들에게 보여줘야 할이 그 사명이라 믿는다.

앞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 해쳐온 여러 회원들께 동지애의 뜨거운 마음을 보냅니다.

박미숙 (농촌여성)

60년대를 거쳐 급격히 추진되어 온 한국의 대외의존적 공업화와 뒷전에는 저임금과 저급가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대외의존적 공업화의 결과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이 심화되고 갈수록 폐쇄적저서 농민들은 모진 병과 엄청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을 수 없었던 큰 물결속에서 우리 농촌여성들은 눈앞이 밝아지고 닦이는대로 하며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억울함과 설움은 가난과 함께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여성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빈곤의 극복입니다. 따라서 농촌여성문제의 해결은 여성 스스로도 농민운동의 주체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남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중운동은 문제당사자인 민중이 자제역량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나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없이선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운동의 경우 해방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단체가 설립되어 활발 활동을 해왔으나 주로 중산층여성, 전문직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뿐 농촌여성이나 도시 근로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경우회의 탄생은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요구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모은 운동의 자립이 요구되는 이때 여성을 자체 힘으로 싹틔움에 있어 하계 피었다는 것은 진정한 여성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기대가 큼니다.

농촌여성으로서 바라는 바는 일차적으로 농촌여성에게 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농촌여성문제도 해결해나가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촌여성에게 관한 제반 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해 동한시 되어있던 농촌여성문제를 이론화 시킬과 동시에 농촌여성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거의 무제상대인 농촌여성들의 교육자료(시청자자료 포함)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농촌여성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태희 (근로여성)

여성운동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 지쳐 무엇이 문제의식을 느끼기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매일 새벽 공장을 향해 나서는 발걸음속엔 오늘 해야 할 책임감에 대한 중압감이 우리를 압도하고, 밤에는 또 다시 출근이 언제로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일 뿐 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성운동을 한다는 여타 단체가 우리에게 주는 사치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이 단지 우리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오늘 당장 살아가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과연 내 눈에만 보여지는 나의 편견일까요? 하지만 애쓰고 일하는 남자의 동반자로서 여성에게 가중되는 더 깊은 실종과 아픔에 동참하는 해결책으로 여성운동은 우리가 받아들이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확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노동문제가 원할히 해결된다고 해도 여성문제가 아른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역할이 필요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억압적 수모와 인권침해는 굳이 사례로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경우회의에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 곳에서 부단히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밀

의 역할과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작에도 우리의 의·지·수를 위해 먼지와 냄새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자신의 건강은 물론 신체의 위협까지 느껴가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절과없이 묵묵히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인간다운 삶으로 제대로 먹고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민정 (학생)

지금까지 여성단체의 성격은 중상류층 여성의 고급사교에만 머물러 그 한계성을 노출시켰다고 봅니다. 이제 여성운동이 독자적인 여성운동으로 성숙하기 위해 여성단체는 확대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 앞으로의 여성단체는 여성운동의 목표설정 및 주제를 뚜렷이 부각시켜야 하고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항을 수행해 나가는 여성경우회의 발전해가기를 기원합니다.

1. 활동목표를 여성인간과 달성에 두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선 여성이 과거의 인습, 편견에서 오는 모든 비합리적인 차별적 지위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여성상의 부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종전의 여성단체들이 알고 있는 여성단체들과 비민주적인 내부구조에서 탈피하여 개혁을 추진수행하여 비민주주의적인 지도자상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종래의 비정치적 단체라는 단일한 태도를 극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진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대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4. 모든 여성단체들과 협동함으로써 오늘날의 온 인류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역사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서로가 힘이 되어야겠습니다.

5. 젊은 여성을 적절히 여성운동가로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타운동권과 모조를 맞추면서 여성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6.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결혼정년제의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의 실시, 평등한 승진기회의 보장, 여성조기정년제 수정 철폐, 여성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압력단체의 구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7.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가정의 보호와 사회의 뒷받침없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여성들을 위해 기본생존권 보장, 노동환경개선, 부당한 해고 등과 관련된 합법적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과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8. 실질적 교육균등 실현을 위해 교부사 내용에서 남녀차별의 언어, 상징, 표현, 사상면에서 남녀차별을 없애고 기술교육, 전문교육에 있어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 남자가 함께 의식화할 수 있는 가족법정운동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성해방에 관한 史的 小考

김 봉 루

I.

여성은 해방되어야 한다.
해방은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으로.
불합리한 것에서부터 합리적인 것으로.
그리하여 불평등한 모든 것이 평등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18 C의 위대하고도 혁명적인 외침은 2천여년 동안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억눌러 왔던 귀족과 노예, 영주와 농노라는 신분제적 차별과 억압의 종말을 고하는 목소리였지만... 이제, 이 외침은 그 시대적 사명을 인정하게 수행한 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인간이 이루어 사는 사회속에서는 신분제적 차별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이 우리의 어찌를 길속이 짓누르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계급·계층의 차별이요 둘째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다. 계급·계층의 차별은 초기의 재산소유와 과다(寡多)를 떠나 지배와 피지배의 질적인 관계로 전화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성에 의한 단순한 역할분담의 차이를 떠나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피지배라는 성에 의한 억압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가장 억압하고 있는 큰 고통인 이 2가지 차별과 불평등은 서로가 사슬의 고리처럼 맞물려져 있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해방이 이뤄지지 않는 한 또 다른 하나의 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가진 자, 못가진 자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남녀차별과 불평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그 반대로 남녀불평등과 억압구조가 극심한 형태를 보여 주는 사회일수록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해방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라는 현실은 역사적으로 드러났다고 하겠다.

II.

역사적으로 여성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지위에 있었고, 가정과 사회의 이중 질곡에서 고통받아 왔었다. 역시 현실에 있어서도 이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가 문명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여성의 지위는 분리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원시 초기는 수렵 채취경제의 시대로 수렵, 채취의 방법과 종류에 있어서 남녀간의 생물적 차이가 남녀간의 성별노동분업을 이루게 되었다. 여성이 출산, 육아를 담당한 관제로 채취경제를, 남성이 수렵을 담당하는 이러한 성별노동분업은 당시의 생산력 수준하에서는, 의, 식, 주의 생존수단을 얻는 방법의 차이 이외에 오늘날에 있어서처럼 차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분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후 생산력 발달로 인하여 농경·목축의 시대가 오게 되고 이전 수렵 채취의 자연경제에서와는 달리 한 사람의 생산력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는 잉여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남성은 분화시킬 수렵의 행위로부터 해방되어 농경, 목축에 힘쓰게 되고 여성은 사람 그 자체가 생산력인 인류자체의 재생산 즉, 출산과 육아에 주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여 “남자는 농경과 목축, 여자는 출산과 육아”라는 성별노동분업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분업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사회적 분업으로 실시되었고 농경, 목축에 있어서 잉여의 창출은 사유재산의 권리와 전유(專有)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계급발생을 의미하는 동시에 소유에 있어서 남자의 우위로 나타나게 되고, 남녀의 노동구별은 차별과 불평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경제적 발전과정 속에서 남녀불평등의 기원을 볼때, 과연 여성억압의 궁극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잡느냐는 문제에 부딪혀 우리에게는 인식의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 남녀의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가 차별과 불평등으로 전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사유재산의 발생과 계급의 등장으로 본다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담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자연히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되어 경제적으로 예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물학적 원인으로 되돌리는, 다시 인식의 출발점이 틀어놓는다는 같은 논리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회의는 "달이 먼거나 제란이 먼거나" 하는 식의 관념론적 순환에 빠지게 되며, 나아가 여성담당의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과 거부, 임신, 출산, 육아등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리기능을 부정하여 불임수술, 인공수정 등 기계문명에 맡겨버리자는 극단적인 자기부정의식과 아니면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나는 한 항상 불평등하며 억압받는 현실로부터 도저히 해방될 수 없다는 숙명론적인 국면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지닌 열등한 인간은 아니다. 과거 원시시대의 여성은 지능이나 체질 또는 사회적 지위로서 정치상의 권리로 보아 남성에게 하등의 손색이 없는 평등한 인간이었다. 오직 생리기능상 그 구별로 인한 남녀의 성적 구별이 있을 따름이며, 인권상 인격상 차별적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류학자, 생물학자 등의 연구에 의하여 차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불평등한 차별을 받지 않고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던 여성이 오늘날 같이 열등하고 억압적인 생활을 하게 되게까지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역사가 문명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경제조직의 변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유재산제의 발생과 계급사회의 출현은 여성을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배제시켜 비생산노동자로 만들고 동시에 인격과 인권까지 박탈하고 남성의 사적인 소유물로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여성이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토대로 한 성의 차별과 소유에 따른 계급의 양측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상호 결합, 변용되어 여성 억압의 물질적 토대가 되어 왔던 것이다.

약간 마무리하여 보면, 사회의 상층구성 즉, 정치·법률·도덕·교육 등 모든 제도가 경제조직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과 같이 여성의 지위도 경제적 변천과 더불어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이 여성의 지위가 열등화한 것이 하나의 우연한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사실이니만큼 여성의 해방운동도 역사적 필연성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문명사회 이후 여성억압과 불평등의 전개과정은 어떤 종류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조직의 변천에 따라 고대·봉건시대 등을 거치면서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나타난다. 반면, 그것은 2천여년의 세월동안 정치·경제사회에 있어서 남성우위의 가부장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천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조직의 변천에도 불구하고性の역

암구조는 카에로운적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해가면서 여성을 억누르고 예측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 역사성, 사회성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생물학적 측면이 여성의 억압을 영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불가항력의 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초역사적이고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남성지배의 가부장제의 물질 토대와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사회경제사적 구조속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아 달리 나타나는 여성 억압과 불평등은 그 시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고찰할 때 그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생산력 발전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 즉, 계급제출 구성의 변화가 좀 더 많은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역시 여성의 지위도 그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완만하나마 점점 그 해방의 정도가 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지위가 역사발전에서 점차 진보되어 갔다는 입장은 史實的인 측면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신분제적 속박과 차별화에 있었던 봉건제에 비해 현재의 여성은 상당한 해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봉건시대와 현 자본제하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단순비교함으로써 자본제 사회가 여성해방에 기여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의 진보성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감상적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며, 현실에 있어서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을 은폐 또는 인식의 정도를 축소화시킨다. 그 반면 여성의 지위를 현 자본제하에서는 과거 봉건제도와 비교해 더 하락하고 불리하다는 입장 또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최초의 여성지위변천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쟁점은 봉건제에서 자본제 이행기의 여성지위에 관한 고찰이다. 국내에 번역된 최초의 책으로 로버타 해밀턴(Roberta Hamilton) 편집의 「여성해방논쟁」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건제적 가정은 가족가족적 경제단위였고, 자본과 노동의 일치였다. 자본과 노동은 모두 가족인 전체의 소유였으며, 이 봉건제적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생산에서 상호 같이 노동을 행하고 남편이 아내를 부양하기보다는 서로 의존하는 것이었으며 물어서 함께 자식을 돌보았다. 그러므로 이 시대 여성은 경제 관계속에서 다소 평등한 권리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역사적 진보의 측면을 진제한 후의 전개이기는 하나 봉건제하의 가족내에서의 남녀관계를 상당히 목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봉건제하의 가족을 이상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봉건제 가정내에서 남녀의 경제적 관계가 자본제 가정에 비해 다소 평등하다고 보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현 자본제하에서의 대규모 기계공업의 폐해를 지나치게 인식한 나머지 봉건제하의 독립 자영농 중심의 경제를 이상화시킴으로써 대규모 기계공업의 진보성을 간과한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진보되었다는 입장이나, 역사성을 간과한 채 봉건제 가정의 기능과 자본제하의 가정의 기능을 단순비교함으로써 오히려 과거를 이상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의 여성의 지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태도가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고대·중세와는 달리 현 자본제하에서의 결

대적 진보의 측면을 역사적 필연성 속에서 규명한 다음, 현 사회내의 성별 정치적 역학관계로 비롯되는 상대적 진보의 정도를 밝히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자본제 경제조직의 특수성, 계급·계층구성의 특수성속에서 자본적 성차별의 특수성을 규명할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N.

18 C 유럽의 산업혁명에 경제조직의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동시에 무소 등의 인권명동의 자유해방사상이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봉건적 신분질서와 인습을 타파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은 것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과거의 부자유, 불평등의 모든 형식적 구속은 깨어지고 개성의 자유를 가진 사회, 그리고 가회공동, 만민 평등의 사회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 산업혁명과 동시에 봉건제하의 농노, 노예 등은 그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계약에 의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평등한 조건의 임금노동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도 과거 남성지배의 인습에서 해방되어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자유계약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것은 자본제하에서는 고대 봉건사회와는 달리 가정의 연속화상태에서 벗어나 여성이 사회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필연성을 보여준 커다란 진보의 척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제적 해방은 신분적 예속에서 개인적 존재로의 해방인 동시에 생산수단으로 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토지도 공장도 없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극대이윤 추구의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유평등의 계약이 경제적 강제에 의해 또다른 굴레에 예속되는 형식적인 해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임이 틀림없다. 역시, 여성을 사회적 노동의 담당자인 노동여성으로 만들어준 자본제적 해방은 前시대의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새로운 자본제적 차별과 억압구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를 살펴보기 이전에 자본주의 前시대의 남녀차별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노예제 및 봉건제하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생산관계에 의한 남녀의 신분제적 차별과 가부장제 가족에 의한 차별로 크게 나뉜다. 여성은 인격과 인권을 가지지 않은 존재로 팔은 부친에 위해서 매매되고 남성은 아내를 돈으로 살 수 있었다. 즉, 이 시대의 여성은 재산처럼 가내노예로서의 위치로 개인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 인간관계는 신분제에 의해서 고정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내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신분제적 종속이라는 이중적 종속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前자본제 사회에 있어서 각 시대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로 나타나지만 그 전형성을 가지고 역사에 등장하였다. 그것은 소유를 기초로하여 형성되었고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소유자의 소유물로서 “노예의 처”라고 하는 실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봉건제하에서도 이러한 여성의 종속은 유사한 것으로 여성은 재산

을 소유한 남성의 재산 상속인을 출산하는 역할과 남성의 性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따름이었다. 다만, 하층계급의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에 있어서의 평등이 다소나마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신분적 지위의 평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형식적인 인격이나만 인정받지 못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농업노동은 출산 육아, 가사 노동과 함께 이중적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소 평등한 노동”이 가족내에서의 남녀 역할관계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사회적 해방과 그리고 그 노동에 의한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노동은 사회적 평등이 아니라 과도한 경제적 착취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前자본제 시대와는 달리 자본제의 남녀차별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자본제하의 남녀차별은 경제적 대공업하의 잉여가치 법칙을 기초로 한 자본·노동의 일반적 관계에 의한 차별과 자본제하의 가족의 형태에 의한 차별로 크게 나뉘어 진다.

먼저 가족내의 성별노동분업과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생산을 행하는 여성노동자는 봉건제하에서의 성과 연령의 차별이라는 자본제적 차별의 독특한 억압구조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가족내에 있어서 성별의 차별적 노동분업이 사회적 노동으로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주로 노동과정에서 의한 차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봉건제말기에서 자본제형성의 초기에 이르는 계급적 시대에서는 노동과정에서 덜 세분화되어 있었으므로 그 노동과정에서 알맞은 숙련도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 이 구별은 세습되어 신분제적 차별로 되었다. 그 반면 기계제 대공업하에서는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숙련생산 노동은 미숙련 생산노동으로 전환하게 되며 인간은 노동의 개인적 제한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아울러 생산을 행하는데 있어서 근력(筋力)은 불필요하게 되어 여성과 연소자도 대량으로 고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숙련에 의한 노동의 차별기준은 어느정도 와해되고 남녀차별의 새로운 기초가 성립하게 된다.

기계제 대공업하에 있어서의 노동력가치는 평균적인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로 규정되고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면 연장자인가, 연소자인가 하는 노동력의 자연적 차이가 그 구성요소로 된다. 본래의 노동력가치와는 무관한 이러한 자연적 차이가 공장제하에서 기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남녀차별의 새로운 기초가 된다.

이러한 남녀차별의 기초는 자본제 성립 이후의 몇가지 기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우선 기계제 대공업하에서 여성과 연소자가 “근육이 없는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노동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그性价가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자본의 직접적 통제하에 들어가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년남성노동자의 노동력 가치가 전 가족 구성원에게 분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년남성노동자 한 명의 임금으로 그 가족이 모두 부양되던 것이 이제 부인과 자식까지도 노동을 해야 생활수준이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자본주의적 법칙은 성과 나이에 의한 자연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남녀차별의 이러한 조건은 동시에 남녀평등의 조건이다. 사회적 해방의 길을 열어 준 자본제는 그 남녀차별에 있어서도 해방과 차별철폐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선 노동이 남녀의 생물학적 힘의 차이를 없애주는 기제에 의한 노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봉건제의 신분제적 차별이 자본제적 차별에 비해 아무리 자본주의적 법칙이 차별을 확대재생산 한다고 하여도 자본제적 차별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여성해방운동이 등장했으며 그 조직적 운동에 의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키며 부분적으로나마 차별을 철폐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인남성노동자의 노동력 가치가 가족 구성원에게 분할된다는 것은 노동자 가족에 있어서 가장(家長)의 가부장제적 기반인 경제적 토대를 약화시키며 상대적으로 여성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 발언력의 강화를 통해 가족내의 성별노동분업의 그변혁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제하의 부르주아 가족은 역시 사유재산에 기초한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이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봉건제도하에서는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이 분리되지 않았던 데 비해 자본제하에서는 물질생산이 사회화된 상품생산영역과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가사노동으로 분리된 것이다. 더우기 상업의 발달로 임노동자화가 대규모로 진행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의 소유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노동"과 "생활"은 분리되었다. 이렇게 되자 가족은 "사회", 사회적 생산제도에 대립된 것으로 사회적 영역으로 남게 되고 사회적 노동물 행하지 않는 여성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정에 종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자본제 가족이 그 본질적 변화없이 자본제하에서 가부장제적 기초를 확고하게 하고 있는 물적 증거가 되어 이 가족내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가정의 사유재산, 대(代)를 이들 자녀를 출산, 양육하며 물적장을 하여 남성의 생애(性愛)를 만족시킨다. 비록 봉건제 가족하의 위치에 비해 여성은 형식적이나마 사회적 인격이 부여되고 정치적 권리로써 투표권이 인정되나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이 가정에 매몰된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과 실질적인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완전한 인격체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여성의 과도한 노동부담, 궁핍한 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함은 그를 스스로를 이상화시키는 근거가 되어 더욱 주관적이고 왜곡된 문화생활을 과장시킨다.

반면, 노동자 가족은 부르주아 가족의 대극(大極)으로 성장하여 엄청난 양적증대를 이루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 가족의 구성원이 성과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공장제도에 편입되어 노동함에 따라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생계를 위하여 흩어져 살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 가족의 해체뿐 아니라 가족내의 역할 재배분을 통하여 남녀평등의 물적 조건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가족부양자로 등장함에 따라 남성의 경제적 독립과 성별노동분업에 커다란 변화를 주어 가부장제적 가족의 물적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제하의 노동자 가족은 해체현상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에 대한 위기감도 나타낸다. 그것은 여성이 담당하는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노동현장으로 나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특히, 과도한 노동시간, 노동강도와 약한 및 새로운 기제 사용 등에 의한 직업병, 낮은 보수 등에 의하여 모성기능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르주아 가족에 비해 노동자 가족은 그 경제적 경향과 모성파괴에 의한 재생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울러 새로운 가족관계의 경제적 기초확립에 대한 하나의 서광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현 자본제하에서의 남녀차별과 여성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해명을 경제적 논의 속에서만 그칠 수는 없다. 그것은 여성이 가족내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남성을 부양한다고 하여도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는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현재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전인적(全人的) 지배, 경제적 수탈까지도 반영하게 된다.

논리적으로는 부르주아 가족에 비해 노동자 가족의 경제적 토대는 여성해방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노동자 가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부르주아 가족내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부르주아 가족내의 남녀관계 즉, 남성에 의해 여성이 부양되고 여성은 경제적, 인격적으로 종속되는 그러한 관계가 현 사회내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어 지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가부장제가 여성의 단순한 경제적 독립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영역까지도 포함되는 과제임을 뜻한다.

노동자 가족에 있어서 남성은 경제적 절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딸을 공장으로 내보내는 것이며 그러한 사실이 현상적으로는 가부장제적 권한의 약화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부르주아 가족의 가장(家長)의 가부장제적 권한이 경제적 여유와 고양에서 다듬어져 그림자화해 표현되는 반면, 노동자 가족의 가부장제적 권한은 사회적 몰락과 절합되어 거칠고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V.

원시사회 이후 인류의 역사가 문명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은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어떤 경제조직과 사회이든, 어떤 다른 사회문화적 조건이든, 아직 미개(未開)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항상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다만, 경제조직의 변천에 따른 약간의 굴곡과 동요가 있을 뿐 따름이었다.

그것은 공공분단의 성이었으며 어찌할 수 없는 체념의 숲이었다. 더우기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오늘의 사회에서도 관찰되는 커다란 결벽이었다. 이러한 여성차별과 억압은 그 조건이 "여성"이라는 성(Sex)에 있는 것이고, 그 차별의 조건이 순전히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일수록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이렇지 볼 때, 여성해방을 논하고 여성운동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무척 힘들게 느껴진다. 그것은 우리 여성 또한 그 차별적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2천여년의 세월 속에서 출산, 육아, 가사의 부담에 얽매고 고립되어서 가내노예적 종속을 면하지 못한 채 스스로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권제(父權制) 사회 성립 이후 가부장제가 전(全) 역사를 통틀어 지속·관철되어도 그 저변에는 여성해방의 전력이 원만하나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자본제 사회에 들어와서는 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곧 인류역사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여성해방을 동반하며 여성해방은 역사 진보에 따라 더욱 진실되게 이루어짐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이제, 해방과 진보의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그것은 산업혁명에 의하여 여성들이 가정에서 벗어나 대 규모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혁명의 목소리와 함께 만민평등사상의 대두는 여성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자각의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여권론(女權論)을 그 해방의 사상적 기초로 하여 동등한 법률적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게 하였다. 비록 여권론이 그 당시의 시민제급의 이익과 일치하였다고 하지만 그 주체는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결혼과 성의 자유를 최전 일부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 여성노동자였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실이다. 즉, 그것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

함으로써만이 해방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청난 노동부담에 비하여 보수가 적을 뿐 아니라 여전히 출산, 육아, 가사를 담당해야 하는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적 노동 그 자체는 진보성을 가진다. 그것은 사회적 생산노동 그 자체가 자본제적 강제를 동반하나 여성에게 조직성,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인간성을 훈련시켜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시민혁명 이후 200여년 동안 활발하고도 처절하게 싸워 얻어낸 참정권과 법률상의 동등한 권리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 시대가 정치, 법률상의 평등뿐 아니라 경제적 평등, 실질적 평등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를 짊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여성이 인권과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얻어내야 할 해방의 내용은 형식적인 남녀평등의 권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적 결핍과 압박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진정한 남녀평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은 경제적 결핍과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해방이며, 그 속에서의 남성과의 대등하고도 평등한 권리의 획득인 것이다. 아울러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장, 육아, 가사 노동의 사회화를 통하여 가정의 굴레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야말로 사회적 해방의 진실한 보장이 될 것이다.

◎ 신 간 안 내 ◎

「매 맞는 아내」

델 마틴(Del Martin) 지음
곽 선 숙 옮김

오늘날 아내(동거인 및 애인 포함)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가정의 안락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강간은 서구의 가부장제 사회가 현재의 남녀차별 상태를 고수하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이다. 델 마틴의 저서 「매 맞는 아내」(Battered Wives)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단순한 아내구타라기 보다는 아내폭행으로 지칭될 수 있는 극단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델 마틴은 이 책에서 미국의 아내 폭행 및 아내구타 현실의 정도와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아내폭행, 강간, 여성살해 등)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성차별적 가치 그리고 태도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과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역사적인 편견, 결혼제도, 경제제도, 형사 및 민법상의 내용 그리고 사회사업기관의 봉사제제 등을 통해 가정내 폭력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제도 속에서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밝히면서 아내폭행 문제에 대해 행해져야 하는 여러 대응책 및 예방책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기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에 관한 자료를 거의 구할 수 없는 현재로서 이 문제에 관해 구축할 수 있는 정확한 실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해 간오환과 수련의사이에 오간 폭행이 수련의들의 집단항의로 번지고, 약사부인이 폭행 남편을 고소했을 때 “남편의 폭행”보다는 “부부 싸움은 잘못 풀리기”라는 미명하에 “남편을 고소한 아내”에 잘못이 맞추어졌던 점을 생각해 보면 아내(여성)를 구타하는 행위는 옛부터 내려온 자연스러운 행위로 간주된 분위기가 지속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가정내 폭력문제를 상담해 주는 「여성의 전화」 개설 등 한국에서도 서서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 이 책의 출간은 여성이 가정내의 비인간화로 부터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홍성사, 1984.5. 간행)

물 일

나 혜 원

꺼먼 흙밭이로구나
 쭈그러 앉아 인형에 코 붙이는
 한칸짜리 월세 방보다는 시원했지
 하루 일 나와 본 바다는
 천지사방 분간못하는
 흙바다

내 살던 집 앞 텃밭에는
 고랑마다 온갖 푸성귀 심어놓고
 남편은 힘깨나 쓰는 농꾼
 마을 어귀에 새마을공장이 선다든가
 풍문으로만 들었더니
 점박이 개구리 알 세던 도랑은
 개흙 풀어놓은 듯
 검정물

이듬해 갈아엮은 땅도
 겁게 썩은 땅
 쟁기는 논 가운데 세워 놓고
 맨손에 흙삼 대신 권

일당벌이 막노동꾼
 개당 몇푼짜리 잡일꾼
 그나마 이 한철엔 자리차지 못하고
 남은 것은
 하루 해 등집지는 고달픈 물일

이틀낮 이틀밤 물일에
 달아버려 붉은 피 내비치는
 손발 미쳐 아물기전
 동죽이며 고동, 낙지까지 닥치는 대로
 하루 꼬박 잡아야 만원
 일년이면 초여름 햇살 따가운
 단 며칠간만 휘어보는 큰돈
 정부미 반말 찬거리 또
 영이 신발이랑 책은 얼마라든가
 어림잡은 셈이 자꾸만 모자라
 그런 내가 부끄러운지
 어느새 붉게 물든
 서쪽 하늘

만석동 여성들의 삶

인천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바닷가를 면한 땅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만석동이다. 그 중에서도 고기잡이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만석동 43번지.

만석동은 일제때부터 취약지역이었고 6.25 동란으로 북한에서 무작정 피난하여 남하한 사람들(특히 황해도)이 바닷가 부두부근 모래땅에 열기설기 판자로 집을 짓고 들어선 것이 지금의 동네를 이룬 것이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무허가 판자집의 밀집도와 인구조밀도가 으뜸으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상태가 극히 취약하다. 우선 가족의 구조를 보면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불복으로 의령을 갖추었거나, 판자·부평으로 의령을 갖추고 있거나 모두 그 내부는 2평 남짓한 방 하나와 부엌뿐인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이웃집과의 사이는 벽하나로 막혀있고, 방문을 나서면 바로 부엌이고 부엌앞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다. 또한 이 동네엔 판자로 된 2층집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2층집이란 공동통로로 사용되는 길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낮은 방을 말한다. 그나마 이 방은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되지 못한다.

겨우 몸하나 빠져나갈 골목길을 제외하고는 길변에 방이 계속 있기때문에 길을 지나면서 눈을 돌리면, 열린 방문과 유리창을 통해 그 집에 있는 가구와 생활형편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가난한 여녀 동네와 같이 개인 소유의 변소는 거의 없고 공동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더럽고 오물이 넘쳐 흐른다.

만석동은 어업과 공업이 병존해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철따라 배를 타고나가 고기잡이나 굴따기 등을 하기도 하고 인근에 있는 큰 공장들인 1제철, D목재, S가구에서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를 가지고 있거나 어업에 능숙한 기술이 있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시로 일을 바꾼다. 재산이나 매운게 없는 이들이 육체노동해서 버는 수입은 워낙 적고, 일도 부정기적이거나 힘들기때문에 직업이동이 잦은 셈이다. 가난한 동네의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남녀노소에 따라 그 일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청년 남성들은 건축일 또는 배부수는 막노동이나 제철소의 용접일, 목재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장년남성들은 고기잡이와 행상, 건축일 막노동에 많이 종사한다. 젊은 미혼여성들은 전자회사 생산직이나 경리직, 서비스직에 많이 취업하고 출나이가 든 기혼여성들은 건축일 막노동, 생선행상, 목재공장, 굴(조개, 낙지)따기, 가내부업등 다양한 일을 한다. 국민학교 아동을까지 신물배달이나 가내부업을 해 낸다.

이중 특히 기혼여성들의 직업이동은 훨씬 심한 편인데 돈벌이 외에 가사일과 자녀교육문제의 부담을 안고 있고, 또 남편이나 미혼여성이 기피하는 일도

한다는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다음의 수경이 엄마는 그러한 전형적인 예이다. 수경이 엄마 전씨(54세)는 이 동네 대부분의 주민들처럼 6.25동란때 남편과 함께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왔다가 머물러 앉아 이곳에서 30년이상 가난속에 살아왔다. 전쟁중에 부모, 형제를 잃고 살던 곳을 떠나 아무 가진 것 없이 새로 정착했으니 유일한 수단인 육체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보았자 그 수입으로는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이고 애들은 자꾸 자라서 생활비, 교육비가 끝없이 불어나니 그 화풀이인지 술 먹는 습관이 붙었다. 3년전 죽기 직전에는 돈벌이보다 술먹기에 더 바쁘더니 끝내 밋만 남겨 놓고 허가 타들어가는 증세로 죽었다. (술때문인 것 같으나 자세한 병명은 모르겠다)

남편은 자신의 형제를 잃은 한에 자식 욕심만 내서 6명이나 낳았는데 쪼들리는 살림에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다.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수경엄마도 나서야 했다. 생선장사, 굴짜기, 조개잡이, 막노동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안해본 일이 없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굴짜기는 동네 어디에 들어오는 배에서 받아다 하기도 하고, 자신이 바다에서 따다가 하기도 하는데 칼을 쥐고 힘껏 얻어쪼아야 짜지는 굴짜기는 칼에 베이기도 하는 등 생각보다 무척 힘들다. 잘해야 하루 5,000원 벌이이고 시장에 잘못 넘기거나 어리숙하게 장사를 하면 본전도 못뺏는다. 굴 한대점을 짜기 위해 자기 키만한 자루를 지고 바닷가에 나가 바닷물에 씻어내고 짜기 전이나 부피가 똑같은 쟁쟁자루를 바닷가까지 들고나가 버리는 작업까지 생각하면 집에서 한다는 것 뿐 하루종일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는 막노동 못지않게 벅하다. 그나마 굴이 적게 나오는 철엔 서로 받아 가지려고 싸움도 나고, 배부리는 사람들의 횡포도 참아야 한다.

오아를 통해 얻는 건축일 막노동은 일당 8,000원에 식사도 제때 나오고 돈도 제때제때 벌 수 있어 좋지만 남자들이 모자랄때만 일이 돌아오니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지난 해에도 주로 굴짜기를 했는데 그것을 오래 계속한 탓인지 겨울동안에는 가슴이 걸리고 머리가 아파 내내 누워있었고 돈만 까먹고 말았다.

큰딸(31세)은 결혼후 청주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고, 큰아들(28세)은 겨울동안 놀더니 금년 봄에야 배에서 용접일을 하게 되었다. 둘째딸(24세)은 부평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데 그 수입은 전부 남편의 밋진 돈 갚기에 쓰인다. 셋째딸(21세)은 인천시내 양장점에서 숙식하며 일하고, 둘째 아들(17세)은 고등학교 1학년에, 막내딸 수경이는 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다. 집안에 들어오는 돈이라야 다달이 밋, 이자 갚고 나면 생활비, 교육비 충

당하는 것으로 바닷하기만 하다. 겨울동안 아파 누운게 되었던지 더욱 쪼들렸다. 몸이 좀 나은 봄에는 동네 아줌마를 통해 얻은 일당 6,000원의 『배녹매는 일(일명:깡이)』도 얼마간 했다. 좀더 나은 수입을 위해 요즘에는 인근 [제철공장]에 청소부로 다닌다. 일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보름치 월급으로 5만원을 손에 쥐었다. 그중에서 열흘치는 회사에 적립시키고 5일치만 지불해주었는데 일당은 3,300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근없이 계속 일하면 150,000원 정도 벌수 있단다. 아침 6시 40분까지 출근하면 7시까지 조화 및 출석점검, 7~12시까지 작업, 12~1시 식사, 1~1시 30분 출석점검, 오후 7시까지 작업한다. 하루에 2번씩 출석점검하는 것도 신경질나고 점심시간엔 30분이상 기다려야 차려가 오는 것도 불편하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청소하면 다리가 아파 항상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 [제철공장내 「쇠 절단일」]은 남자가 하지만 여자도 가끔한다. 다른일에 비해 일당이 많은 편이지만 워낙 위험율이 높아 하려는 사람이 모자란다. 청소부 수정엄마에게도 그 일을 해보라고 회사사람들이 권하지만 거절했다.

남편이 살았을 때는 술때문에 매일 싸우고, 죽고 나니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남편 빚때문에 더 고생이다. 언제나 이렇게 쪼들리는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이라고 단칸짜리 방에 돌아오면 방에 장작불도 지피야 하고 저녁밥도 지어야 하는데 막내 수정이는 갑자기 걸려 줄목거리고 몸은 젖은 솜처럼 무겁지만 하고……

수정엄마는 뒷마루에 앉아 청자담배를 피우며 한숨 짓는다.

현하엄마(34세)는 시골에서 농사짓다 살기 힘들어 얼마전 큰집이 사는 이곳으로 이사왔다. 아직 3살된 막내가 있어 부업으로 목걸이 잇기를 해보았는데 하루 100원 벌이로 애들 과자값도 안되어 그만 두고 공장에 취직했다. 막내는 큰집에 맡기고 다른 공장보다 조금 일찍 끝난다는 S목재공장에 다닌다. 공장에서는 건조된 나무 나르는 일을 하는데 너무 힘에 부친다. 일할 때마다 이 일이 여자가 해야하는 일인지 한심스럽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기위해 참을 수밖에 없다. 이 공장에는 남자 100명, 여자 80명이 일하는데 여자는 동네 아줌마들이 대부분이고 처녀는 몇명되지 않을 뿐아니라 훨씬 쉬운일—나무에 도장찍는 일—을 한다. 입사 며칠전 반장아줌마가 기계를 만지다 머리가 말려 들어가 죽었다고 한다. 이에 몇몇 아줌마들이 “남자가 만지야 할 기계일을 여자에게는 시키지 말든가, 여자에게 그 일을 시킬 경우는 남자랑 똑같은 일당을 달라”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도시와 공장생활을 처음 해 보는 현하 엄마는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실엄마(40세)는 두번째 부인이다. 지금의 남편이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이미 딸린 자식이 둘이나 있었다.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둘을 더 낳고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2달전 병으로 죽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기에 집으로 데려와 70만원이나 주고 낳았는데 효과도 없이 죽고 말

았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캄캄하다. 요즈음 배를 타고나가 인근 갯벌(욕도)에서 조개를 캐내 시장에 내다파는 일을 했다. 아침 7시에 배를 타면(정원 15명에 30명 승선) 1시간가량 걸려 갯벌에 닿는다. 오후 3~4시까지 피약벌 아래 갯벌위를 헤집고다니며 조개를 캐다. 4시이후 배를 타고 돌아와 조개를 옮겨놓고 집에서 껍질을 까서 저녁 6시부터는 시장에 내다 팔고 8~9시경에야 집에 돌아온다. 이 일은 잘하면 하루에 1만원 이상 벌수 있지만 일이 힘들어 며칠 일하고 나면 몸이 아픈 까닭에 이 일을 계속하는 엄마는 없다. 게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게 되니 남편없는 집안살림과 애를 걱정해 정실엄마도 며칠만에 그만 두었다.

이 동네에는 갓난아이를 둔 엄마를 제외하고는 가사와 자녀교육만을 담당하고 남편이 버는 돈만으로 먹고 살수 있는 팔자좋은(?) 여자는 거의 없다.

일이 너무 힘들거나 부정기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는 있어도 특히 자식교육비 마련을 위해 억척스레 일을 찾아나선다.

그러나 지역내 주부들이 하는 일이란 이 동네 처녀나 남자들이 기피하는 일까지도 도맡아서 하는 궂은 일뿐이어서 그만큼 덩치는 적고 고달프기만 하다.

빈한한 살림, 불만스런 부부관계, 말안듣고 공부 못하는 자식이 일반적인 현상인 가정에서 즐거움이란 큰 찾을 수 없다. 일의 보람도, 가정의 즐거움도 남의 얘기가 되어버린 엄마들에게 유일한 낙은 30년이래 목은 정으로 동네아줌마들과 맺은 친목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월 3,000원씩 걸어서 회원들 관혼상제나 생일에 잔치를 벌이거나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어울려 춤추고 놀다보면 시름이 잠시 가시지는 듯하다.

술, 담배, 화투 못하는 동네 아줌마도 드물지만 아저씨들, 청년들 술버릇은 고약하다.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치르고, 싸움하고 기껏 빈돈을 탕진해 부부싸움이 잦은 집이 많다. 30년 벌어도 반듯한 자기집은 커녕 자식교육시키기도 힘들어 자식에게도 무지, 빈곤을 남겨주게 되니 가슴에 천불이 나서 술을 마시고, 만석동 2세(만석동이 고향)인 자식들은 움치고 뛰 어 봤자 저학력, 무기술에 대를 물려 가난을 잇게 되니 술을 먹고 거친 화를내는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석동은 “인천의 시작”이라는 희망찬 대명사보다 “싸움으로 유명한 곳”으로 더 잘 알려진 동네이다.

그래도 생활을 꾸리기 위해 새벽이면 쉼물빠지듯 공장으로, 부둣가로 밀려나가고 밤이면 밀물들어오듯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가정과 자식이란 명예를 등에 지고 궂은 일 나가는 여자들, 피곤한 몸에 늦은 저녁까지 장작연기에 눈물짓고, 늦밤 또는 새벽에 팔래하고 김치 담그며 가끔은 아들의 복행발금 및 배상금때문에 가슴덜렁하고, 술먹는 남편과 싸우면서 생활을 버티나가는 여자들이 사는, 삶의 진한 냄새가 배어있는 현상이 바로 가난한 이곳이다. (홍미영, 김정만)

가족법자료집 발간

여성문제와 관계된 자료발간 첫 사업으로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3월 14일 펴냈다. 1977년 가족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가족법에는 남녀차별 조항이 남아있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의 인간화 측면에서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본 자료집이 간행됐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호주제 연구논문: 가족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가 유럽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 고유제도인가에 대한 역사적 타당성 여부를 밝힌 연구논문

1. 가족법과 성차별사태: 가족법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 및 남녀차별이 극심한 가족법 조항에 대한 간단한 해설

1. 가족법 개정관계자료 요약: 가족법 개정운동측과 개정반대측의 운동역사 및 논점등의 소개

「큰물」 공부방 개원

공부방사업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도시 빈민지역의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도시빈민이 계층적으로 억눌린 집단이라고 할 때 빈민여성은 성과 계층의 이중 억압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첫사업으로 인천 만석동 지역에 도시 300 여권과 책상을 비치하고 「큰물」 공부방이란 이름아래 2월 26일 아동도서관을 개원했다.

지역내 대부분의 주부들이 공장, 행상등의 일을 나가고 있어 방과후 방치되어 있거나 학습지진아인 아동들에게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로써 가난한 지역 아동의 문화결핍, 학습부진 현상을 개선하도록 도와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공부방은 만석동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9시까지 개방되며, 매주 토요일에는 정서함양, 공동체의식 함양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현재까지 그리기, 만들기 공동작업, 연극, 노래, 지능개발, 소풍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한편 5월 6일에는 어린이잔치를 동네마당에서 개최, 주민과 함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개원 3개월에 이룬 공부방사업은 현재 성실한 진행과 가정방문을 통해 주민(특히 주부)과 아동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가난한 여성, 지역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모색중에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후원회원들의 찬조비와 회비로 운영되며, 1명의 실무자와 사회개발부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공부방사업 후원회 모집

공부방사업을 위한 후원회원을 계속 모집중에 있으니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본회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8679). 후원회 회비는 한일은행 005-02-417751, 주력은행 412701-84-603058 홍이영 앞으로 송금하시고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여성평우회(The Women for Equality and Peace)는 여성운동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새문화창조와 여성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83년 6월 18일 창립된 여성단체이다. 본회는 회원의 찬조비와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로서 조직 및 교육부, 조사연구부, 출판홍보부, 사회개발부, 재정부, 문화부등 6개 부서가 있으며, 84년 하반기(7.1-12.31)에 계획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교육사업

1. 월례특강: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증대시키고, 여성운동의 실천적 과제해결의 기초가 될 특강을 회원·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1. 월례토론회: 여성문제의 이론적 축적이 빈약한 현상황하에서 여성운동을 발전시키고 이론을 심화시켜 나갈 여성문제 토론회를 회원대상으로 개최한다.

1. 여성학 교실개설: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문제 기초적 인식을 위한 여성학 교실을 1개월 과정(주1회)으로 개설한다.

◎ 출판홍보사업

1. “여성문제 입문서” 간행

1. “제3세계 여성노동의 이론과 실제”번역서 간행

1. “빈민지역의 여성과 아동” 자료집 발간: 빈민여성과 아동을 보는 시각, 지역적 특성, 사례 및 해설등을 내용으로 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 공부방운영 및 상담사업

1. 인천 만석동 아동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지역내 여성을 위한 상담사업등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내 여성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 문화사업

1. “여성과 일” 사진전 개최

1. 여성카렌다제작: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한 카렌다를 제작한다.

◎ 기타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한다.

한국여성개발원 상담실 개설

한국여성개발원(원장:金榮範)은 자원개발실 부설로 상담과를 신설, 4월 2일부터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이 상담실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① 직장에서의 성차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피해를 본 여성이 상담해 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한다. ② 결혼가족 상담과 복지기관 알선: 법률, 심리, 의학분야를 함께 포함한 종합상담 체제로써 시행한다. ③ 취업가이드: 저학력 여성, 고학력 여성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취업정보를 취합, 적절한 안내를 해줄 계획이다.

상담방법은 면접상담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방상담자를 위해 전화, 서신 상담도 함께 받는다.

상담시간은 월~금(상오 10시 ~ 12시, 하오 2시 ~ 4시)

전화: 812-7240

주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

「기생관광」 마당극 공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산하 「동우리」회원들은 5월 1일과 2일 기생관광을 내용으로 한 마당극 창단공연을 가졌다. 공연된 「기생관광」은 연기진 13명의 주부가 공동으로 짜낸 구성작품으로서 1막은 기생관광에 희생된 원혼과 정신대에 끌려간 여성을 위한 문향으로 이루어졌다. 2막에 이르러서는 기생관광의 현재상황, 기생의 화대가 착취당하는 현장, 기생과 팀의 실태가 고발됐다. 3막은 한국여성들이 일본여성들로부터 도외적 책임성을 추궁받는 등 기생관광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풍자하였다.

남녀차별 심한 조기정년제

여자직업인의 정년은 전체 직업여성의 4% 정도만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뿐 대부분 43세에 정년을 맞는가 하면 30세나 25세에 정년을 맞는 등 너무나 다양하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근무하던 교환원 김영희씨가 당공사의 정년퇴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제기도 남녀차별 정년에 따른 사건이다.

김영희씨는 체신부의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 61년부터 시외전화국과 전기통신공사에서 일해오다 교환원의 정년을 만 43세로 바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82년말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에 부당한 정년 퇴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선고공판(1983. 6. 21)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전기통신공사노조가 회사측과 맺고 있는 단체협약이 교환직 정년 43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이 단체협약은 모법(母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화교환원, 타자원, 전산원등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및 고용직 근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0세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공무원은 현행 규정상 3년간 정년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53세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조선일보 1984. 6. 3일자)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 공무원 정년을 58세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는 달리 교환원 정년을 50세로 규정했기 때문에 남녀차별 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사무직 여사원의 정년을 25세로 정하고 해당 연령에 달한 여직원들을 해고한 성바오로병원 처사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퇴직 조치한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키도록 명하고,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및 동법 제27조, 동법 제95조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해 의법 조치하도록 담당노동행정사무소에 지시하였다. 노동부는 또한 전국 지방사무소에 여자 근로자의 정년 연령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분명한 사유 없이 남자 근로자와 지나친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라고 통고했다.

이 조치 역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어 여성의 조기정년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다.

가족법은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가

1.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1. 아버지쪽(8촌)과 어머니쪽(4촌), 남편(시부-8촌, 시모-4촌)과 아내(1촌)쪽을 크게 차별한 친족범위는 고쳐져야 한다.
1. 부모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1. 재산분할 청구권은 신설되어야 한다.
1. 아내의 의견을 묻지도 않게 되어있는 서자 입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1. 남녀의 불공평한 재산상속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1. 양자는 입양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고쳐져야 한다.
1. 적모, 서자관계, 계모자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
1. 처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공동의 재산이므로 상속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발기 취지문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성,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민족과 인류의 발전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유로 예속적이며 억압적인 삶을 강요당해 왔다. 성별 노동분업을 토대로 형성된 가부장제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복종을 고정시켰으며, 예속을 미화하는 신화와 이념 그리고 사회화를 통하여 내면화된 여성 열등의식은 남녀불평등 구조를 유지, 강화시켰다.

1975년 유엔은 "세계 여성의 해"를 공포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에 있어서 여성의 단합을 공고히 하고,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데, 여성의 공헌을 증진시킨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회구하는 "평등, 발전, 평화"를 여성운동의 이념으로 정하였다. 여성을 억압하는 본질은 사회 전체에 내재한 불합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모든 비인간적인 요소를 그 대상으로 삼고, 남녀차별만의 문제해결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개혁운동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여성운동이 다 같을 수는 없다. 개개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그 전개상황이 다르며 그 해결을 위한 방법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여성은 가부장적 제도의 희생자요, 산업사회의 소외된 계층이고 또한 국토분단의 비극적 피해자이다. 한국 여성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여성"으로서,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농촌여성"으로서, 가난과 폭력의 이중질곡에 빠져있는 "도시빈민여성"으로서, 가정에 고립되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도시주부"로서 존재한다. 바로 이들 여성의 저임노동과 무임노동의 토대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여성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받아왔다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은 서로의 처지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한다.

구국운동과 봉건적인 남녀차별 철학을 여성운동의 공동목표로 내세우며 시작된 한국 여성운동은 7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여성들로 부터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운동은 일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이어서는 안되며, 중산층 이상의 여가선용에 머무른 운동이어서는 더욱 더 안될 것이다. 여성운동은 전 여성의 인간화 운동이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비인간적 요소를 타파하려는 총체적 운동이어야 한다.

타고날때 생긴 모습이 운명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그동안 여성에게 강요한 복종과 희생의 비인간적인 굴레를 청산할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여성의 자유와 평등된 위치를 위해 다른 사람이 노력해 주리라 고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 여성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통일을 향한 민주의지를 토대로 삼고, 여성으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한 두 사람의 역량보다는 모든 여성의 공동적인 협조와 노력을 중요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평우회"를 발기함에 있어 한국 여성의 밝은 내일과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스러운 한국사회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한국 여성이며, 우리 모두 단결하여 여성의 인간화 운동에 앞장 서 나가자.